

# VIETNAM SAO

일상다반사  
일상다반사  
홍안유치원 이야기!

HOT했던 워크 캠프

김슬기 단원에게  
무슨 일이!!!!!!

Raonatti 6th vietnam 



##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아이들

### 일상...

유치원의 생활은 10월보고서에서 이미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11월도 19일까지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유치원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저희들의 베트남 이름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루는 매일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환호 속에서 말이죠. 긴 출근 시간에 지치다가도 아이들의 환호 소리에 기운이 펴집니다.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하루는 시끌벅적합니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아이들의 표현방법이 울면서 선생님에게 달려드는 것 이다보니 2,3살 반이 위치한 2층은 항상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3층은 제법 그럴싸하게 연필과 공책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치원의 생활은 익숙해져 갑니다.

### 그리고, 스승의 날 !

우리가 마지막 유치원으로 가는 11월 19일에는 우연히도 11월 20일이 베트남 선생님의 날 이어서 19일에 선생님의 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각 반 아이들은 퍼포먼스 몇 가지를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살 반은 노래를, 3살 반은 율동과 패션쇼를, 4살 반과 5살 반은 노래와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족관련 베트남 노래와 한국 스승의 은혜 그리고 태권도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를 마치고 베트남 YMCA에서 저녁을 먹고 강당에서 연습을 며칠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19일 아침 일찍부터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의 공연에 선생님, 부모님, 아이들 모두가 몰입해갔습니다. 조그마한 입술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나 조그마한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광대도 아프더라구요. 그런데 아이들 공연에 한참 빠져 있다가 생각보다 행사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저희 느낌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저희 순서에서 약간 시간이 지연됐지만 준비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부족한 베트남어 노래였지만 너무 고맙게도 유치원 친구들이 같이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부르고 태권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무리해서 다리를 찢어가며 연습한 터라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보여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다행히 실수하는 모습도 웃으며 넘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날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의 발

차기 세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앞에서 발차기는 삼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재롱잔치..♥

그리고 점심시간. 원장 선생님과 식사를 함께 하고, 평상시처럼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스승의 날이어서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선생님들! 함께 사진도 찍고 선생님들과 놀다보니 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유치원에서 평상시처럼 아이들과 지내다가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갈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집에 갈 때만큼은 인사하고 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가는 아이들이지만 그런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





## 일정

일 11월 20일	월 ~ 금 11월 21일~ 25일		토 11월 26일	일 11월 27일	화 11월 29일
10:00 워크캠프 발대식 16:00 벤 켄 도착	영어 가르치기	학교 보수공사	8:30 지역주민의 집 방문 15:00 학교 도착 16:00 장기자랑 18:00 저녁식사	8:00 벤 켄 출발 9:00 메콩투어 16:00 호치민 도착	18:00 송별회

### 출발, 설렘 ...!

정신없던 11월. 이번 달 마지막 일정 워크캠프  
11월 20일 일요일

10시경, 출발 전 OT를 위해 베트남 YMCA  
에 모인 싱가포르 고등학생 친구들과 베트남  
친구들. 그리고 우리

룹 총장님의 일정 설명을 마지막으로 함께  
첫 식사를 하고, 가슴 속에 다들 두근거림  
을 담고, 아직은 어색함을 풀지 못한 채 호  
치민을 출발했습니다.



**벤 켄(Ben tre)** 도착! 5시 도착 예정이  
 었지만 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벤 켄.  
 베트남 어느 곳이든 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가 묵기로 한 Hung vuong 호텔 앞은 강  
 변에 있어 마치 여행 온 듯 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도착 이외의 별다른 일정이 없어 각자  
 방에서 쉬거나, 호텔 앞을 산책했습니다.



### 월요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워크캠프!

7시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워크캠프 장소인 Le Tho Xuan 초등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다리 몇 개를 건너고, 무너질 듯 한 다리가 버스 무게를 못 이겨 걷기를 두어 번 하여 8시  
 30분경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 학교 보수공사를 돕는 일로 각각  
 나누어 일을 했습니다. 우리 단원들 역시, 김민호 단원과 김남규 단원은 학교 보수공사, 황  
 주희 단원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 장현진 단원은 오전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보수  
 공사를 도우는 일로 나누어 워크캠프에 참여했습니다.

### 조용한 학교 전경



### 영어 가르치기 ^.^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참여한 황주희 단원은 주로 싱가포르 고등학생이 준비한 수업을 도와주  
 었습니다. 아이들은 6살에서부터 10살까지로, 특이한 것은 하루 종일 수업 받는 것이 아니  
 라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약 2시간가량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싱가포르 학생들이  
 준비한 수업은 영어로 인사말하기, 좋아하는 음식이야기 나누기,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딱딱한 수업보다는 역시 종이접기나  
 그림그리기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알던 단순한 동요

들을 영어로 가르쳐주고, 베트남어로 배우며 우리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은 교실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나머지 한 시간은 아이들과 밖에서 체육활동을 했습니다. 체육활동은 그 시간에 배운 영어를 복습하기 위해 놀이를 하거나, 우리나라의 수건돌리기 같은 놀이 등을 함께 했습니다.



##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 ~♪

처음에는 낮을 가리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제가 들고 다니는 사진기를 보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면 함께 고무줄놀이를 하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하며 내내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친구들이 늘 수업을 진행했고, 저는 도우미 역할만 해서인지 미리 저희끼리 수업을 준비해 갔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학교 보수공사 돕기 ^.^

또 다른 일로 학교 보수공사를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ben tre에서의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워낙 햇빛이 따가운 탓에 더움을 느끼기 전에 정말 태양을 피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함보다는 따가운 태양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라온아띠 6기 아닙니까? 몸 좀 풀어줬습니다. 솔직히 첫날은 무한 삽질과 땅을 다지는 일로 모두 녹초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요령도 많이 부족했고, 싱가포르의 건강한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약간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와서 웃어주는 아이들이 저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먹던 음료수와 과자를 내밀어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먹어도 될지, 괜찮다고 해야 하는지 망설였지만 권해주는 사람의 마음도 있으니 조금 아~주 조금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내미는 조그만 과자에 정말 큰마음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보면 웃고 엉덩이를 치고 도망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에 더욱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 아이들의 스타가 된 일주일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요령이 붙어서 제법 일을 잘해나갔습니다. 오전에 일을 마치고 점심시간까지는 약간 시간이 남아서 그때 점심시간인 아이들 그리고 싱가포르 친구들과 공놀이나 베트남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비슷한 cau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인 친구들이 제기차기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혼자서 몇 십 개는 거뜬히 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초등학생들과 순수하게 어울리는 싱가포르 친구들 또한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쑥스러워 낯가림도 있었지만 금방 서로 말을 걸고 같은 걸 공유하다보니 친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희를 배려해서 서툰 영어실력에도 들어주고 고쳐주는 친구들이 너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싱가포르 친구들도 서로 어색한 친구들이 많은 지라 불편했을 텐데 저희를 배려하는 모습에 제법 어른스럽고 당당한 모습들이 저희를 보고 배우게 했습니다. 베트남에 오침시간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점심시간이 약 3시간 정도 되다보니 이야기의 장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친구들은 서로 다른 반 다른 친구들과 봉사활동으로 학기 중에 오게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고, 그러다보면 점심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또이약별 아래에서 함께 ^.^

그리고 오후 일과가 시작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땅을 파고 벽돌을 쌓고 땅을 평탄화해서 시멘트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공사장 같고 울퉁불퉁한 흙바닥이 깔

끔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간은 초등학교에 있는 단 하나뿐인 화장실을 가는 유일한 길 이었는데 평상시에 아이들이 다니기에 불편했을 것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공간이 점점 울타리 벽도 생기고 깔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벽은 키가 넘는 높이로 쌓였고, 바닥도 금요일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 3/4가량을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못보고 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공간을 뛰어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역 주민들 집 방문기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초등학교의 일을 돕고, 토요일에는 초등학교 근처 지역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고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그만 트럭을 타고 20여 분간 그림에서나 볼 법한 야자수가 가득한 풍경을 지나자 마을 주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현진 단원과 황주희 단원이 방문했던 가족들은 먼저 집 앞의 정원을 구경시켜주셨습니다.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집안에 있는 정원이라 생각하지만,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야자수. 꽃. 강. 모두가 그들의 정원이었고, 마치 사람들의 흔적이 한 번도 단지 않은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느낌이랄까. 우리나라 시골과 같은 듯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용 π\_π

돌아보던 중 가장 특이했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나무 판 두 개만 놓아두고, 그 밑은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강, 그게 전부인 화장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 화장실.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밑에 있는 화장실은 보았지만, 그보다 더 쇼킹했던 화장실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자신의 화장실을 애용하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오라던 이야기를 아주 잘 실천(?)하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 아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뻐해주신 탓에 해먹에 누어 잠까지 자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짧은 베트남어와 영어였지만 우리 고모, 이모 같은 분의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남규 단원과 김민호 단원은 굽이굽이 야자수 나무 사이를 지나 월남전에 참전 하셨던 할아버지가 계시는 초등학교 학생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칼로 야자수를 잘라 한통씩 나눠주시고 이후에도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가 계시는 초등학교 학생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칼로 야자수를 잘라 한통씩 나눠주시고 이후에도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가 계시는 초등학교 학생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구경했는데 월남전을 참전하시고 통일 이후 받으신 표창장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직접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을 만나 뵈었더니 팬스레 저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거한 점심 이후에 휴식을 취한 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림같은 풍경..

우리 단원들 모두 마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며, 짧은 시간동안의 만남이 못내 아쉬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 장기자랑 시간 >.< !!

학교에 다시 도착하니 3시! 오늘은 워크캠프 장기자랑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초등학생 꼬마 아이들도, 싱가포르 친구들도, 우리도 각자 연습해 보여주는 날!!

우리는 며칠 전부터 고민 끝에 태권도가 가장 괜찮겠다는 생각에 3일간을 연습했습니다.

4시부터 이뤄진 행사. 우리 순서는 교장선생님의 말씀 후 바로 다음.

작은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과 싱가포르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우리는 연습했던 태권도와 격파를 보여주었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들으며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교장선생님과 친구들과 다함께 학교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 짧았던 메콩 강 투어..

다음날은 메콩 강 투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콩 강 투어는 벤체 바로 옆인 미토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강물줄기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코코넛샌디를 만드는 곳, 과일이 많은 정원 등을 들르고 마지막에는 베트남 특유의 작은 배를 타고 짧은 투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호치민으로 출발. 잠시 이별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친구들은 호치민을 둘러보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일주일 간 쉽 없이 달린 탓인지 좋은 기억을 간직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 송별회. 그리고 이별..

잠간의 이별 후. 화요일. 베트남 YMCA에서 다함께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클럽 총장님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고, 마지막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베트남에서 산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는데, 친구들의 고맙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역시 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색하고, 낯도 가려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먼저 다가와주고, 유쾌한 친구들 덕분에 벤 제 아이들만이 아닌 또 다른 인연을 맺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 조금 더 함께하자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을 보며 우리 역시도 훌가분함만이 아닌 아쉬운 이별의 감정을 느끼며 워크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함께한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behind story  
by . 슬기

## 변외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김슬기 단원입니다.

저의 11월 키워드는 수족구병이지 싶어요.

수족구병은 Hand-foot-mouth disease 라고 해요. 손이랑 입이랑 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서 그렇게 불러요. 열을 동반하기도 하구요. 보통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아이들이 걸리는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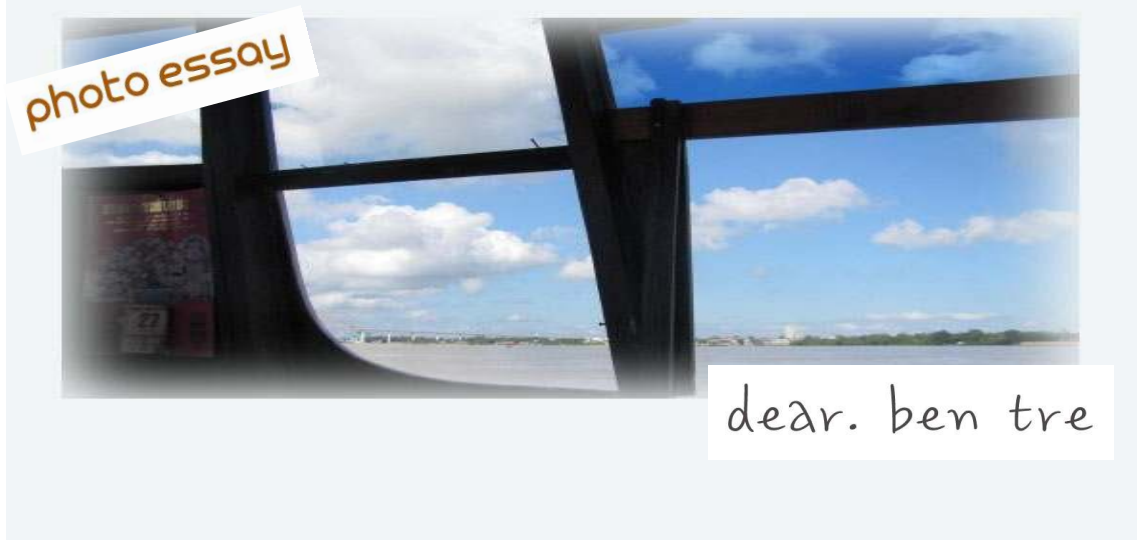
이에요. 베트남에서는 뇌수막염같은 합병증이 치명적이라 사망할 수 있다고 주의가 내려진 전염병이기도 해요. 수족구병은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방법밖엔 치료책이 없어서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숙소에 격리조치되었답니다.

워크캠프는 참여하지 못했구요. 유치원 일도 하지 못했답니다. ㅠ.ㅠ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혼자 있는 동안, 제가 걱정되신 엄마가 베트남에 오셨어요. 11월 23일, 수요일부터 11월 26일 토요일까지요.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엄마를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암튼 저의 11월은 이렇게 지냈답니다. 건강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의무라는 프랭클린의 말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은 아프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게요. 라온아띠 6기 화이팅 !





벤째 도착하자마자 보였던 풍경..  
 햇살이 따가웠던 벤째  
 일주일동안 우리에게 비하방울 보이지 않던 너



유명한 관광지의 느낌보단 소박한 마을 같은 벤째.  
 유난히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 코코넛  
 그들에게겐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게겐 조금은 색달랐던  
 풍경.



베트남은 사이공강, 메콩강이 흘러 다리가 많지만,  
 벤 째는 특히 더 많이 느껴졌다.  
 이 다리는 늘 우리를 견제 한 다리.  
 덕분에 스치고 지나던 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



코코넛 하면 대부분 등그렇게 크게 생겨서,  
 그 안에 과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물에서 자라는 코코넛도 있다는 것!  
 젤리인데 코코넛보다 단맛은 조금 덜 하다.



어느 곳이든 카메라만 대면  
 사진영사 같던 벤 째  
 오랜만에 보는 소에  
 다들 소 울음소리를 따라했던 기억 ..

Raonatti 6th vietnam 

주소 : 9708\_D9 KHA VAN CAN,  
 P. HIEP BINH CHINH, Q. THU DUC

